

마르틴 루터의 밧모 섬: 할로윈데이로 전락한 종교개혁일의 의미

성경말씀: 롬1:16-17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라는 34살의 한 신부가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 중세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 비텐베르크 대학 궁정 교회 정문 앞에 <95개 조 반박문>을 게재하였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큰 사건, 예수님 초림 이후 가장 큰 사건, 근대 시민 사회를 연 사건 그런데 교회의 달력에서도 이 날은 사라졌다. 오히려 마귀는 이날을 할로윈데이(Halloween day)로 바꾸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날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 할로윈데이는 아이들에게 마귀의 탈을 씌워 귀신 놀이를 하는 대중문화 축제일이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대통령 부부가 이날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마귀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마귀가 얼마나 속임수와 선동의 대가인지 알 수 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믿음과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루터는 옳지 못한 점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종교 개혁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 그러나 502년 전 유럽에서는 아무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에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내걸고 천주교회와 교황에 항거하여 믿음의 자유를 쟁취함, 그 이후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선물해 준 일은 역사적으로 영적을 심히 중대한 일이다. 바로 그는 불의에 항거하는 자들 즉 프로테스탄트들의 창시자가 되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 >

루터의 고민

마르틴 루터(1483년 11월 10일-1546년 2월 18일), 만 63세

루터는 독일 작센 주 아이슬레벤에서 구리 광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시립 라틴어 학교, 성당학교, 사제학교에 다녔다. 이어 1501년 초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여 인문학부에서 공부했다. 루터는 1505년 1월에 석사학위 마치고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505년 7월 2일, 22살 나이, 여름방학을 맞아 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 에르푸르트 근교에서 천둥번개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때 그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이며 광부들의 수호성인인 성 안나를 부르며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7일에 수련사의 자격으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에 정진하여 1507년 2월 27일, 24살 나이에 부제로 그리고 같은 해 4월 4일에 사제로 서품되었다.

그는 1511년 비텐베르크 대학교로 옮겼으며 1512년에는 만 29세에 신학박사가 되었고, 1513년부터 성경학 강의를 시작했다. 1515년, 32살 때부터 마르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 열 곳을 감독하면서 새로 발견한 복음의 씨앗을 전파할 위치에 서게 되었다

중세에는 구원에 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했다. 수도원에서 경건하고 금욕적인 고행을 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었고 일상적인 삶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었다. 루터는 전자를 선택했다. 수도사에게는 세 가지 서원, 즉 청빈과 복종 및 정결이 요구되었다. 수도사는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며 예배, 기도, 명상에 정진하고 고행을 감내해야 했다. 루터는 이 모든 중세적 구원의 방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에도 루터는 여전히 신부의 신분이었다. 그가 수도복을 벗은 것은 종교개혁이 발발하고 나서 7년이 지난 1524년 10월이다.

루터의 문제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죄들이 제거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음
그 당시 수도사의 고행: “오랜 기간 동안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으며, 또한 수면도 취하지 않으면서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옷을 입거나 담요를 뒤집어쓰지도 않은 채-게다가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수행하는 것은 진지한 수도승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일”

그의 스승의 조언: 로마를 다녀와라. 그래서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로마 여행, 문제가 더 복잡해짐, 교황과 추기경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 그대로 위선자들, 스칼라 상타 계단 고행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가? 전 유럽에서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가?”

루터는 성서학 교수로 시편 강해(1513-1515), 로마서 강해(1515-1516), 갈라디아서 강해(1516-1517)과 신약성경 강해, 그러나 영적인 평안 없음, 그를 압도하는 죄의식은 고해성사와 금욕으로 해결되지 않음. 고해신부는 그가 너무나 자주 고해를 하러 오니까 "죄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오라"고 함.

그는 천주교의 행위 구원 신학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로마서 말씀이 그를 구원해 주었다.

롬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이다. 구약성경의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고 '자기 의'를 철저히 부수기 위한 도구

구원은 외우거나 행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

엡2:8-10,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

종교개혁의 배경

루터는 원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 천주교 안에서 조용한 개혁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많은 돈 필요, 면죄부 판매

독일의 면죄부 판매책인 도미니코수도회 소속 수도사 요한 테첼

“봉헌함에 금화가 딸그랑거리며 떨어지는 순간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곧장 올라갑니다!”

루터의 마음속에 불이 붙음

이를 보다 못한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교수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대자보를 붙였다. ‘95개조 반박문’이라는 제목의 이 대자보 제21조에서 루터는 “면죄부를 사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교황의 면죄부로 모든 형벌을 면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제86조에서는 “오늘날 교황의 수입은 세상에서 제일 봉한 자의 수입보다도 많은데, 베드로 대성전쯤이야 궁핍한 신자들의 돈이 아니라 교황 자신의 돈으로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인쇄술

루터는 운이 좋았다. 당시 유럽에 보급되기 시작한 활판인쇄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명

루터의 주장은 활자로 인쇄되어 순식간에 독일 전역으로 퍼졌다. 루터가 쓴 일련의 종교개혁 관련 서적들은 당시 신성로마제국 국민 1인당 1권씩 돌아갈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셈이다.

루터는 처음부터 교황청과 대립하려 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교회 내의 부조리에 대해 온건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교황청은 루터에게서 ‘이단’의 혐의를 발견했다. 교황은 수차례 루터를 로마로 소환했지만, 루터는 이에 불응했다. 오히려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규탄했다. 교황은 1520년 6월 교서를 내려 루터의 모든 저작들을 불사르도록 명령하는 한편,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화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루터는 그해 10월 지지자들을 이끌고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서 교황의 교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렸다.

이듬해 즉 1521년 1월 교황 레오10세는 루터를 파문하는 한편,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에게 루터를 처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루터를 잘못 다루었다가는 반란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한 그는 보름스에서 열리는 제국의회 청문회에 루터를 소환했다.

루터가 소환에 응하여 보름스에 도착한 것은 4월 16일이었다. 다음날 황제 앞에서 법정에 제출된 서적들이 자신의 저작임을 인정하였고, 책 속에 담긴 주장을 취소하기를 강요당하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4월 18일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성경에 의한 증명을 통해 또는 명백한 이유와 근거로 납득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다고 한 말은 유명하다 “나는 아무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 장면을 독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다.

루터의 밧모섬

루터는 1521년 4월 26일 보름스 출발, 비텐베르크로 향했지만, 도중에 괴한들에게 납치당했다. 루터를 지지하는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꾸민 납치극이었다. 이후 1년 동안 루터는 옹커 외르크라는 이름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했다.

비텐베르크 95개조와 이신칭의로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또 다른 책무가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일을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완수하였다.

제임스 레스턴의 <루터의 밧모섬(원제 Luther's Fortress)>은 바로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성에서 보낸 1년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밧모 섬은 복음서의 저자 중 하나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섬의 이름이다. 밧모 섬에서 요한이 신의 계시를 받았듯이, 루터 또한 이곳에서 그에 필적하는 체험을 했다는 의미겠다. 원 제목은 <루터의 강한 성>

이 시기는 루터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파문을 당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사회적으로도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지지자들과 고립된 것이 그를 더 힘들게 했다. 건강도 상했다. 수시로 마귀를 만나고, 마귀와 싸웠다고 술회할 정도로 심적으로도 지쳐갔다. 하지만 루터는 이 시기를 한탄만 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1. 우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다. 가장 중요한 일, 이전에 독일어 성 성경이 있었으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움, 그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경을 바탕으로 10주 만에 신약 27권을 번역했다. 시장의 아낙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점에 루터가 번역한 성경의 특징점이 있다. 루터가 성서에 사용한 독일어는 근대 독일어의 기초가 되었다.

2. 그는 또한 찬송가를 작사하고 종교개혁 문서들을 체계화하였다.

“루터는 음악이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였다. 음악은 신학과 닮은 점이 많은데 특히 영혼을 고치고 영들을 소생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음악이 없으면 인간은 목석과 마찬가지로 음악이 있으면 마귀를 멀리 보낼 수 있다. 루터는 이것을 영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직접 경험하였다. “음악은 나를 자주 소생시켜 주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1529년, 시편 46편 기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라
2.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만드시 이기리로다
3.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한 일은 결국 사상의 생산-교육-홍보-조직화로 요약할 수 있다. 1년 후 루터가 성에서 나와 비텐베르크로 돌아왔을 때, 루터도,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더욱 강해져 있었다. 그 후 유럽의 역사,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면서 가톨릭 세계가 무너졌다. 처음에는 제후들에게만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로 발전해 나갔다. 가톨릭의 전체주의 세계관이 무너진 자리에 근대 신민 국가가 들어섰다. 미국의 팽창에 따라 그러한 가치관과 질서는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지역으로 전파됐다.

이 모든 것이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는 대자보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못질해 붙인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세상: 종교인들의 거대한 위선과 거짓이 세상을 지배함, 교황 추기경 등 모두가 종교에 절어서 타락함, 다수의 무지한 대중은 거기에 따라가는 상황,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 그 구원은 고행과 선행에 의한 행위 구원,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온 세상이 다 그러하였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마르틴 루터 혼자서 진실을 보고, 진실을 외쳤다.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못질할 들려온 소리는, 근대 자유 시대가 열리는 나팔소리였다. 한 사람,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우리의 상황

대한민국은 건국 후 71년 하나님의 축복

좌익 세력들의 거짓 속임 선동

목사들과 교회들의 타락, 결국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로 빠질 위협에 봉착함

지금 우리나라의 성도들, 애국 시민들,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성경 신자들도 어찌면 지금 바르트부르크 성의 루터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 거짓과 위선이 득세하는 세태 속에서, 진리를 배격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있다.

하지만 루터는 좌절하지 않았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루터는 스스로의 사상을 다듬고, 지지자들을 조직하고 교육시키고, 책을 펴내 홍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승리했다. 이것이 종교개혁일인 10월 31일에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올바른 성경을 내기 원하신다.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원하신다. 내가 ...

올바른 교회를 원하신다. 내가 ..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을 원하신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